

한국민족주의 연구(I)

- 발전단계, 성격 및 평가를 중심으로 -

변 재 현*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ism(1)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stages, characteristics & estimation -

Byun Jae - Hyun

목 차

- | | |
|------------------|----------------|
| I. 서 언 | IV. 한국민족주의의 평가 |
| II. 한국민족주의의 발전단계 | V. 결 언 |
| III. 한국민족주의의 성격 | |

I. 서 언

우리는 지금 한국민족주의의 분명한 좌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이다. 21세기 급변하는 세계사의 상황에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의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겠다. 우리 역사에서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해방이 있은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지지 못함과 동시에 민족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세의 권력정치의 결과로 형성된 남북간의 분단구조도 여전히 혁파되지 못한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이상 민족의 힘을 낭비하거나 분산시킬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남북간에 가로 놓여있는 적대감을 넘어서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족정체성의 표현인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민족주의의 성격과 평가를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민족주의의 발전단계를 크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부교수

계 한말, 일제시대 및 분단이후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성격을 크게 외생적, 중첩적, 문화적, 분단형적 및 반일적 성격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한국민족주의의 발전단계

한국민족주의의 발전단계를 크게 한말, 일제시대 및 분단시대로 나누어서 고찰해 본다. 한국의 발전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기초한 민족의식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설명이 우선된다고 하겠다. 한국민족주의는 서구민족주의와는 달리 그 발생시기, 주제, 발전단계 등의 차원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서구민족주의는 중세의 왕국과 교회가 점차적으로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근대시민혁명과 더불어서 명확한 민족국가가가 형성됨으로써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서구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었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¹⁾.

즉 제1단계로서는 프랑스대혁명(1789년)부터 1870년(보불전쟁)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서구민족주의의 형성기로서 근대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제2단계로서는 1870년 부터 1918년(제1차대전종결)까지의 시기로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표출된 시기라고 하겠다. 이 시기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타민족에 대한 지배와 종속의 사슬구조를 형성시켰던 시기라고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구민족국가들은 근대시민국가의 형성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어 자본의 독점화현상(소자본이 대자본에 흡수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서 원자재, 상품의 판매시장 및 자본의 투하장소 등을 위해 국가권력과 결부하여 제국주의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는데,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은 총동원되어 대외침략전쟁에 나서게 되었다.

제3단계는 1918년부터 1945년(제2차대전종결)까지의 시기로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유지의 단계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4단계는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민족주의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제협조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이 시기는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미 이룩한 단계로서 각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민족국가 상호간의 우호친선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서구민족주의는 20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형성되고 과제를 완성하여 왔는데, 이에 반해 한국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이룩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축적과 분배의 공평을 성취하는 이중 과제를 단기간내에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1) 구체적인 것은 Edward H. Carr, *Nationalism and After*(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45), pp. 2 - 27 참조. 여기서 Carr는 근세이후의 서구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크게 3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1기는 국가주의시기 2기는 국민주의 시기 3기는 국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병진시기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한 국정치50년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 글은 노태구, 「한국의 정치와 민족주의 사상 : 광복50년 분단과 통일의 과정」, 한국정치학회 주최 제5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1995. 7. 20 - 21) 발표문, pp. 11 - 22 참조.

1. 韓末의 民族主義

근대한국민족주의의 출발점은 그 논의가 분분하지만 일반적인 통설은 18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한국민족주의는 근대화에 대한 강한 열망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둘째로는 한국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의 전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이 가장 현저하고 전형적으로 표출된 시기가 바로 1860년대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도 이미 서구제국주의의 물결이 노정되기 시작한 시기으로써, 한국의 실질적인 종주국이었던 淸이 영불연합국에 의해 항복했고(1860년 8월), 러시아가 전통적인 외교정책인 南下政策을 적극화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제너럴셔먼호사건(1866년)과 병인양요(1866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른바 서양의 충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²⁾.

뿐만아니라 일본 역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서 1868년 明治維新을 단행해서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체제를 형성 하여 富國強兵論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이러한 체제정비작업을 완수한 다음 한반도에 대한 억압적인 개항을 강요하여 봉건적인 왕조지배체제에 안주하고 있던 한민족에게 새로운 민족의지를 표출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한말 한국민족주의는 크게 3갈래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爲政斥邪運動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開化運動을 지적할 수 있고 셋째로는 東學運動을 언급할 수 있다.

위정척사운동은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 옹호를 전제로 한 저항양식으로 전통적인 성리학적 가치체계를 옹호하면서 서구의 근대문명 그자체를 비인격화적 물신성으로 규정하고 있다³⁾. 즉 문호개방을 전후하여 일본세력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의 전통과 긍지를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민족운동으로서 의병투쟁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외세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속에서 하나의 구국운동으로 발전하여 항일의거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⁴⁾. 이처럼 위정척사운동은 서구의 충격에 대한 자기방어입장에서 도출된 민족주의운동으로 근대한국민족주의의 출발점을 이루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정척사운동은 성리학적 전통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적 양반층과 전국유생집단과 유생들이 그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排他를 통해서 自己를 고수하려는 현상유지적 경향을 띠어 외래문화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말살하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中華思想에 안주하여 근대적인 국제질서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그리고 서구의 사상이나 문물을 무조건적으로 사악한 것으로 배척하여 개화운동을 지연시켰다는 사실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⁵⁾.

그러나 위정척사운동은 한국민족주의의 源流의 하나로 다루어야 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

2) "한말의 민족주의는 한국민족주의의 제1기" (진덕규, 『한국의 민족주의』, 현대사, 1976, pp. 79-91)라고 표현할 수 있는바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행동유형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3) 斥邪思想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구조에 대해서는 진덕규,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성격』, 진덕규외, 『한길역사강좌』 3(한길사, 1987), p. 13 참조.

4) 김우태, 『정치학원론』 (형설출판사, 1992), p. 371.

5) 김우태, 『한국민족주의연구』 (부산대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84), p.95.

다고 하겠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한국민족주의의 양대과제인 반침략, 반봉건 가운데 반침략·반제의 기능을 사상과 운동면에서 수행하였다는 점과 둘째로는 대일의병투쟁이나 독립군의 무장투쟁의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처럼 위정척사운동은 비록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지만 밀려드는 외세의 침략성을 간파하고 민족적 위기의식을 고조케 하여 국론통일에 의한 자주역량으로 민족을 보존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의 활력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민족주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⁶⁾.

한말의 민족주의운동중 위정척사운동과 더불어서 중요한 갈래는 개화사상을 토대로 한 개화운동이라고 하겠다⁷⁾. 개화사상은 외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內在的인 自己思想體系의 발로현상으로 實學을 통해서 발전했다고 하겠다. 기본적인 사상체계는 서구사상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전통적인 왕조체제의 제도적인 성격을 서구의 근대적인 제도와 같은 성격으로 변혁시키자는 주장과 함께 서구의 문물을 급속히 수용하고 동시에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수용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룩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교육과 문화의 自強을 강조하고 있다⁸⁾.

그러나 개화운동은 사회변혁을 통해서 세계사적 흐름에 함께하려는 근대화적 열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긴 하지만 왕조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근대적 개혁운동이 민중속에 세력기반을 갖지 못하고 소수 선각자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한말민족주의의 최종적인 귀결점은 동학운동에 의해 표출되었다. 동학운동은 근대한국민족주의의 표상적 운동으로 당시 사회경제적 모순구조에 대한 대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변혁을 열망하는 일반 민중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의 주변정세는 청,일,노,영 등 외세가 정치적·경제적으로 긴박하게 조선을 위협해오고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도리어 외세에 의존하여 정부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적응성을 상실한 조선왕조체제하에서 당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과중한 부담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특히 양반관료들의 농민에 대한 착취는 농민의 불평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 최창규교수는 위정척사운동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그 당시 대외적으로 겹쳐진 민족적 모순은 바로 한민족의 자존이라는 민족적 주체성에 도전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순에 저항했던 그들의 인식은 단순한 배타적 수구만이 아니고 민족의 개별적인 자주를 확보하려는 민족의식의 초기적인 인식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한국민족주의의 시원적 주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창규, 『근대한국정치사상사』(일조각, 1975), p. 135.

7) 개화사상은 크게 내용면에서 3단계로 변천 발전하였다. 1단계는 1870년대로 개화는 개국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2단계는 1880년대로 소위 외국기술을 받아들여 나라의 부강을 이룩해 보겠다는 사상으로 발전되었고 3단계는 1890년대와 1900년대로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 주장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8) 개화사상의 핵심적인 인식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구사상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의 개화사상(변법 및 양무운동)이 서구의 사회진화론적 인식을 밑바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을 사회존립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물질위주의 발전경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셋째, 당시 개화사상의 주장자들은 집권세력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신년청년층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지향성은 급진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진덕규, 앞의글, pp. 14 - 15.

농민들은 3중적인 약탈상태하에 있었다. 첫째, 정치지배계급으로부터 약탈과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지배계급은 농민층을 약탈함으로써 권력의 지속화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계층의 약탈보다도 더한층 거대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둘째, 각지방에서 정치와 경제적인 특권을 향유하고 있던 지방토호세력으로부터 전개되었고 세제, 서구의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적 성격에 의해서 침탈되고 있었다. 일본을 선두로 하여 새로이 유입되었던 근대적 상품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민계층들은 이러한 약탈적 상황에서 변혁에 대한 열정을 강력히 형성하고 있었다. 동학운동은 이러한 농민들의 변혁에 대한 욕구의 반영물이라고 하겠다. 동학사상은 척사사상이나 개화사상과는 다른 기존체제를 부인하는 개혁사상으로 그 핵심적 내용은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⁹⁾. 人乃天사상을 사상의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봉건주의적인 신분제도를 거부하면서 모든사람이 계급적인 신분적인 차등에서 벗어나 대등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동학은 '斥洋斥倭' 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외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학운동은 이처럼 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 근대적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일인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¹⁰⁾.

2. 日帝時代의 民族主義

일제시대의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제의 통치기간은 식민지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직접통치에 의한 동화정책으로 언급할 수 있다. 전통을 파괴하고 민족혼을 말살하는 강압정책은 우리민족의 자의식을 고양시켜서 한국민족주의를 반일민족주의로 특징지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겠다.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의 근본 목적은 한국민족의 말살정책으로 흔히 언급되고 있다. 일제는 자신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의식구조에 패배주의적 열등적인 민족관을 부식시켰다. 또한 한국인의 결사와 정치적 집회는 물론이고 옥외에서 행하는 비정치적인 집회까지도 금지하고 식민지 지배에 비타협적인 인사는 '不逞鮮人'이라 하여 무차별적으로 검거·투옥하여 3·1운동이 일어나기 전해인 1918년에 이르러서는 14만 이상의 한국인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9) 동학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민족주의적 요소로서의 동학사상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민족개혁사상이다. 이는 먼저 세계주의의 한 기초로서 민족주의를 표방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보국안민사상이다. 보국안민은 국내적으로는 주권재민사상과 밖으로는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세제는 중화사상으로부터의 탈피이다. 본래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한 자아의 분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문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박영사, 1962), p. 58 ; 이용희, 『정치와 정치사상』(일조각, 1960), p. 375. 그리고 동학사상의 기본적인 성격은 진덕규, 앞의 글, pp. 15 - 16참조.

10) 김우태, 앞의 글, p. 101.

11) 동화정책은 일제의 대한식민주의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동화정책은 일본의 고대국가형성 이래 왜곡된 한국사관(史觀)에 근거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한동조론(日韓同祖論), 주체적 발전의 결여론(타율성론), 정한론(征韓論) 및 대동합방론 등이 있다. 일제의 식민정책의 특성으로서 동화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우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8), pp. 46~89참조.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수탈정책을 강화하여 철저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조성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조선에 대한 경제정책의 특징은 식량·공업원료의 약탈 및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식민지적 경제로 재편성함에 있다. 즉 농업·공업·상업·어업·광업 등 모든 기간산업이 일제의 식민지경제체제로 개편함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표의 구체적인 표현이 토지수탈과 토지약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12년 토지조사령이 발표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은 본격화되어 1918년 11월에 완료되었는데, 명목상으로는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마련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국가권력에 의한 토지약탈과 地稅수탈이 그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약탈한 토지가 전국 농토의 40%에 해당될 정도였다. 총독부는 몰수한 토지를 국유지로 변경시켜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일본이주민에게 불하되어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늘어가는 대신 우리 농민은 거의가 지주에 예속되는 소작인으로 전락되었고 일부는 도시로 유입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은 농촌사회의 계층분화를 급속히 진전시켜서 반봉건적인 소작관계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굳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¹²⁾.

이상과 같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하에서 발생한 것이 1919년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일본의 가열된 침탈에 대한 일반민중의 저항의식이 민족적 독립열정과 결부되어 표출된 것으로 민족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위해 민중적 역량이 총합적으로 결집된 사건이라고 하겠다. 또한 3·1운동은 분산되어 있던 한국민족주의운동을 통합하여 민족의식의 통일을 통한 민족주의의 전개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형성하였다고 하겠다¹³⁾. 비록 3·1운동은 민족의 독립을 성취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⁴⁾.

첫째, 이 운동은 대외적으로는 항일운동이요 대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수립운동 곧 공화주의 운동이었다. 합병전의 애국계몽기부터 신민회운동 등을 통해 이미 군주주권을 부정하는 공화주의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3·1운동의 결실로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공화주의 정부였다. 둘째로 3·1운동은 무장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병이전에도 민족운동이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두갈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이 합병 후에는 독립전쟁론과 실력배양론으로 나타나 각각 준비단계에 들어 있었으나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에서 준비되고 있던 독립전쟁에 불길을 당겼다. 셋째로 3·1운동은 민족운동의 방

12)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인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명목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제로 농민들의 소작화를 급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당시농촌인구의 76%가 토지에 대한 과거의 거의 세습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기한부 계약에만 의존해야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이정식(저)·편집부(역), 『한국민족주의의 정치학』(한밭출판사, 1982), p. 131

13) 3·1운동은 그 사상면에서 단순히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갑신정변 이후의 그때까지의 한국독립운동의 축적으로 보아야한다.

14) 구체적인 것은 강만길,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 pp. 46-48 참조. 3·1운동이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 초기 조직화의 단계에서 거의 동시에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 세력집단의 흐름이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을 기획하면서 결국 민족대연합전선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신용하, 『3·1독립운동 발발의 경위』, 윤병석외, 『한국근대사Ⅱ』(지식산업사, 1977), p. 39.

향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에 대거 참가했던 노동자 농민층의 정치의식, 사회의식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이후의 민족운동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네째로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운동 전선에는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뚜렷한 구분이 나타났다. 滿洲 沿海州의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독립론이 비교적 선명히 구분되었고 다른 한편 종래의 절대독립론이 계속 주장되는가 하면 실력양성론, 독립준비론에 근거한 식민지체제아래서의 자치론이 나타나서 민족운동전선에 혼선이 빚어졌다. 다섯째로 3·1운동은 대외적으로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민족운동을 유발하거나 그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던 중국 민족주의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5·4운동을 촉발하게 하였고 영국의 식민통치 아래에 있었던 인도에서도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국민회의파가 3·1운동에 자극받아 그 독립운동의 단계를 높여갔다.

3·1운동은 이상과 같은 의의로 인해서 한국민족주의 사상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의 일제하 한국민족주의운동은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인한 분열적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족운동노선의 분열은 궁극적으로 독립운동전선의 분화를 초래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투쟁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겠다.

3. 分斷時代의 韓國民族主義

1945년 8·15해방은 일제식민통치의 질곡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우리민족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8·15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각인시켰다. 이로써 한국민족주의는 또다시 시련과 고난을 맞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8선에 의한 미 소의 분할점령,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민족의 분열, 미소공동위의 결렬, 김일성공산정권의 수립과 대한민국정부수립 등의 분단의 역사는, 국제권력정치 of 지배적 영향하에서 주체역량의 미비와 부족으로 한국민족주의가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진통과 수모와 실패를 의미한다. 그동안의 정치 사회단체의 이합집산, 군정하의 좌우합작의 실패, 남북협상의 좌절 등은 그 일부가 한국민족주의가 내포해온 고질적 분열증이 타율성의 분위기속에서 노정된 것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의미에서 분단시대 이후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제1차적이고 본원적인 과제는 바로 분단상황의 극복 즉 민족통일에 있다고 하겠다. 사실 분단시대의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그 이전의 시기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즉 정치적 민주화, 자립경제의 확립, 사회정의의 실현, 민족정기의 확립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분단이 민족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소권력정치 of 부산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한 통합질서의 창출이라는 통일의 과업이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평가된다¹⁶⁾.

민족역량을 낭비하고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현재의 분단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

15) 김우태, 앞의 글, pp. 116 - 117.

16) 구체적인 것은 위의 글, pp. 116 - 121 참조

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정치의 민주화를 통하여 주체의식의 회복과 주체역량의 육성을 요구한다¹⁷⁾. 8·15이후 우리의 국정지표는 민주주의였다.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사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는 국민의 내적 분열을 가속화시켜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은 해방이후의 정치사를 통해서 일찌기 경험한 바 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는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민족역량을 분산시켜서 민족의 힘을 낭비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민주화의 추진은 민족적 주체성의 회복과 주체역량의 육성을 이룩하여 한국민족주의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4·19이후 즐기차게 전개되었던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역시 민족주의운동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자립성 혹은 자주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국토분단은 우리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세의 권력정치의 결과로 이루어졌지만 민족통일만큼은 반드시 강대국의 이익을 내재화시키는 비주체적인 양태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민족의 발전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한국민족주의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자민족중심주의나 국수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조응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원형을 추구할 때 이 나라의 진정한 자주성 회복은 성취된다고 하겠다. 자주성의 회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립경제의 확보라고 하겠다. 한국경제의 기형적이고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역시 포괄적인 민족주의운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경제적 자립위에서 만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고찰된다¹⁸⁾.

Ⅲ. 한국민족주의의 성격

기나긴 세월의 흐름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한국민족주의를 몇가지의 특징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다. 한국민족주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17) 위의 글, p.119.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민족주의는 민족의 번영, 생존,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 민족주의적 과제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토양속에서 만이 극대화되고 승화될 수 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김동성, 『한국민족주의연구』(오름,1995), pp. 31 - 36과 pp. 101 - 154 참조. 서구의 근대민족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대혁명의 슬로건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점수교수는 “민족주의의 대두는 어떤 민족적인 이념과 감상의 성장과 부합되어 있다”라고 단정짓고 있다. 한점수, 『이데올로기 : 민족주의의 공산주의』(박영사, 1983), p. 44.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최초의 접합연구는 루소에 의해서 발견된다. 구체적인 것은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지식산업사, 1983), pp. 122 - 129 참조.

18) 김우태교수는 분단체제下에서 한국민족주의가 나아갈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민족주의는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잠시라도 멈출 수 없다. 통일의 길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통하여 주체의식의 회복과 주체적역량의 육성에 힘써야 하고, 자립경제의 확립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민족정기의 확립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김우태, 앞의글, p. 121.

의사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19세기 후반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한반도에 현저히 노정화됨으로써 그에 대한 반항과 반발의 차원에서 출발하였다고 하겠다. 한국민족주의의 형성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는 서구제국주의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서구제국주의는 명분으로는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시장체제를 주장하면서 아시아해방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소국에 대해서 약탈과 억압정책을 노골화하였다. 한국의 동학에서 斥洋斥倭의 기치를 내세운 것은 서구제국주의의 반이성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산증거라고 하겠다. 두번째의 형성배경은 일본의 大東亞共榮圈에 의한 식민정책에 있다. 일본의 아시아해방론에 근거한 대동아공영권은 영미세력의 식민정책에 대한 반격과 보호의 차원에서 전개했던 논리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점령에 대한 국수주의적 야망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1. 外生的 性格(抵抗民族主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민족주의는 근대시민혁명의 결과 민족국가가 형성됨으로써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즉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진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래서 서구민족주의는 민족국가수립이라는 통일의 과업과 민주주의적 체제의 달성이란 자유의 이중과업을 긴 세월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취하였다. 그러나 한국민족주의는 체제개혁에 대한 의식이 보편화되기 전에 외래세력의 급작스러운 도래에 의해서 민족자결권이 통채로 밖으로부터 부정당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대내적인 체제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외세의 무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침탈구조에 대한 반항의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또한 저항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외생적 성격은 동시에 저항민족주의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고찰된다.

한국민족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크게 두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첫째가 외세의 침략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구한말, 일제시대 및 해방후를 막론하고 한국민족운동은 반외세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사실 안에서의 자유보다는 밖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하였다. 외세의 침략은 주로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억압적인 문호개방(1876년)과 강제적인 한일합방(1910년)을 들 수 있다. 반봉건·근대화라는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과제에 대한 국민적 보편성을 통한 민족주의운동으로 승화될려고 하는 찰라에 합방의 비운을 맞고 말았다. 저항적 성격을 규율하는 두번째의 배경으로서는 민족해방투쟁의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식민지국가의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민족주의는 민족해방전선의 차원에서 그 활동과 방향이 전개되었다.

일제하의 민족해방투쟁전선에서 괄목만한 성과를 보인 활동은 상해임정의 결성과 한국독립운동전선의 통일활동이라고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 3·1운동을 전후해서 국내의 8개처에서 발생한 임시정부가 분열에 따른 분산, 낭비, 혼란, 소모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동단결하여 단일정부를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새로운 광복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한국민족주의의 저항적 의미를 극명하게 표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또한 1931년 9·

18사변이래 중국본토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가 확산되자 한국독립운동전선은 지금까지 난립되어 오던 각독립운동정당, 단체들의 통일을 통한 대일항쟁체제를 도모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1940년 5월 9일 통합한국당을 결성한 사건 역시 저항적 의미를 현저히 표현해 준 사건이다. 이처럼 한국민족주의는 서구의 충격에 의해서 자기방어의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발전되었고, 근대시민계급의 결여로 인해 내생적 원동력의 미성숙상태에서 외생적인 계기에 의해 발전됨으로써 외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²⁰⁾.

2. 重疊的 性格(多元的 民族主義)

한국민족주의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구민족주의와는 달리 발전단계의 동시성으로 인해서 단층적이고 단일한 성격보다는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²¹⁾. 이러한 중첩적인 성격은 다양한 배경을 통해서 내재화되었다. 첫째,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들 수 있다. 우리한국정치사회는 짧은 근현대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 역사의 과정이 규칙성을 띠지 못하고 변칙성이 매우 강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는 일관된 과제와 성격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짧은 시기에 여러시대가 겹침으로 해서 또 다른 시대정신이 요구되어 지는 상황을 연속으로 겪게되는 결과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였다.

한국민족주의의 중첩적 성격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간의 괴리와 모순의 결과에 크게 기인한다. 한국사회의 전통문화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자문할 정도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는 혼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혼재구조가 바로 민족주의운동에 그대로 투영되어 표방하는 구호에 있어서 일관성의 결여를 초래한다. 그래서 한국민족주의는 수구반동적인 성격과 혹은 급진변혁적인 성격을 동시에 표방할 수 있다. 한국민족주의가 발전단계 뿐아니라 표방하는 과제에 있어서 매우 표리부동하여 일체성이 부족한 이유는 역사의 미청산에 있다고 고찰된다. 일제시대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미청산은 한국민족주의의 복합적인 성격을 강화 내지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과제에 있어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과제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역사에 대한 확실한 청산만이 국민적 통합의 첩경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미청산적 현상은 구질서를 강화시켜 새로운 모순을 낳게하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여기에 한국민족주의

19) 저항 민족주의는 “한민족 또는 국가가 타민족 및 국가의 침범범을 배격하고 자기 민족의 동질성과 국가 주권·독립·자결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라사랑』, 제21집(외솔회, 1975), p. 49. 그리고 저항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용희, 『한국민족주의』(서문당, 1977), pp. 20 - 30 참조.

20) 저항민족주의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지금까지 자주독립, 근대화 및 국토통일이라는 세과제를 수행해 왔고 또 수행하고 있다. 한국저항민족주의의 제문제에 대해서는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까치, 1981), pp. 82 - 96 참조.

21)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중 중첩적 성격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민족주의 전개과정의 동시성을 뜻한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민족주의 과제가 단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중첩됨을 의미한다. 둘째, 현상변혁과 현상융호적 양상이 사회와 국가 발전의 양측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보수와 진보의 이궁구조가 사회구조의 토대적 기저를 이루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어쨌든 한국민족주의는 지나친 사회변동의 심화로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과제보다는 비연속적이고 복층적인 과제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의 고민과 고뇌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3. 文化的 性格(文化民族主義)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히 외세의 침략에 대해 저항만하는 일차원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즉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으로 타민족의 회생을 통해서 자기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는 저급하고 원시적인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한국민족주의는 다른 신생국의 민족주의의 발전단계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바로 이점이 다른 민족주의와 구분되고 차별성을 지니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민족주의의 문화적 성격은 유구한 단일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일체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한국민족주의는 확고한 역사적인 기반아래서 출발하고 있고 역사적 발전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족적 토대가 취약한 여타의 신생국민족주의는 항상 배타적인 배제적인 차원으로 전개되지만 한국민족주의는 역사적 정통성으로 인해 일체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화적 성격은 세계평화주의와 연결된다. 벌써 언급한 것처럼 한국민족주의는 자민족중심주의라는 국수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유구한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고 성장하여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타민족과의 조화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영토를 지켜왔다. 즉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제고시키면서도 세계평화와의 방향성을 유지해왔다.

4. 分斷型的 性格(分斷型 民族主義)

한국민족주의는 문화적 성격의 지향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이념적 유형을 형성할 정도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민족주의전개를 막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분단이다. 분단시대의 민족주의는 우리민족전체의 발전에 결정적인 한계를 가져다 주는 원천적인 원인이다²²⁾. 이런 연유로 분단시대 한국민족주의의 최대의 과제는 통일이다. 민족통일은 바로 한국민족주의의 완성을 의미할 정도로 그 의미가 지대하다. 통일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분열을 통합하는 의미로 체제분쟁과 대결 및 갈등의 종식을 뜻한다. 동시에 민족분열현상에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민족 역량의 낭비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기가 될 것이다.

사실 분단체제의 반세기에 걸친 장기화는 민족의 현실적인 고통의 원천이며 민족사의 굴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분단은 민족의 단절과 고립을 심화시키고 남북쌍방의 체제경쟁과 극단적 대립을 초래케 하여 민족상호간의 반목과 적대감이 심화되는 양상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민족의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분단이 가지는 이 상과 같은 해악으로 인해 분단시대 한국민족주의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분단체제의 해소에 있

22) 민족분단과 한국민족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진덕규교수는 "민족의 분단이라는 사실은 한국정치에서 민족주의의 한계를 말함과 동시에 좌절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는 첫째, 정치의 민족주의적 실천. 둘째, 경제의 민족주의적 전개. 셋째, 민족문화의 이념적 창달을 주장하고 있다. 진덕규, 앞의 글, pp. 25 - 26.

다는 것은 不問可知의 일이다. 왜냐하면 분단구조의 해소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과 의식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분단은 동서양진영의 갈등과 권력정치의 희생물적 반영물이기 때문에 이후 한반도는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통일은 냉전체제의 실질적인 해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분단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모든 속박과 비운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동시에 통일은 화해와 협력을 모토로 하는 통합적인 현국의 새질서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은 자명하다. 강대국에 의한 분할점령의 상황에서 이탈되어 동북아평화질서구축에 일정한 공헌 내지 기여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은 분단형적 성격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5. 反日的 性格(反日民族主義)

일반적으로 신생국의 민족주의는 대부분 서구의 식민적 통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예외없이 서구열강의 침략과 약탈이 감행되어 왔다. 식민지 침략세력에 항거하기 위해 사상적, 이념적 기초로서 식민지민족주의는 발전을 하여 왔다. 그래서 식민지민족주의는 민족자결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주권평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식민지배를 당할 때는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해방이후에는 자기체제내에 온존하고 있는 지난날의 식민지유제를 효과적으로 청산하는 동력으로서, 국가사회를 자주적으로 건설하는 차원으로 승화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신생국의 민족주의는 대부분 반서구적 경향을 띠고 있다. 다시말하면 서구의 발전문명과의 단절을 통한 투쟁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서구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않음으로써 서구세력보다는 일본에 대한 저항심리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반일적 민족주의로서의 특징을 함유하고 있다.

IV. 韓國民族主義의 評價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민족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한국민족주의는 성장하여 왔다. 무수한 역사의 시련을 거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지속하여 왔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구한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민족운동을 끈질기게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는 세계사의 조류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민족주의의 분류를 목격하고 있다. 한국민족주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통해서 고찰한 내용을 면밀히 규명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한국민족주의의 모형을 찾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한국민족주의를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현재 한국민족주의는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민족주의의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는 분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고 내적으로는 통합력상실로 인한 정치사회의 분열구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

은 한국민족주의를 구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민족분단은 한국민족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극한적인 한계점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분단극복이라는 통일과업을 위해서는 내적인 응집력이 절대적인 뒷받침 논리가 되어야 하나 실제적으로 국내세력의 돌이키기 힘든 분열현상(특히 망국적인 지역할거구도)은 한국민족주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한국민족주의는 저항적 성격이 전형적인 성격임으로써 반외세반제투쟁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민족주의는 자기발전을 위한 개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항의 목표와 대상이 사라지자 그동안 일시적으로 뭉쳤던 저항세력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여 국내적 위기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제는 외부세력에 대한 저항의식을 극복하고 대외적, 대내적 자기쇄신에 투입할 수 있는 통합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민족주의는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호응하는 체제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원천적인 장애는 분단이지만 민족주의적 정신이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못한다. 민족주의가 체제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순수한 민족의식의 집결체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민족주의는 투쟁목표가 매우 다양하여 통일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약점을 안고 있다. 투쟁의 대상이 짧은 현대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치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표와 투쟁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못하는 부조화를 나타내었다는 점이 한국민족주의의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V. 결 언

지금까지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 성격 및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한국민족주의는 서구민족주의와는 달리 내생적인 민족의지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여타의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이고 생소한 외래문명사회와의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접촉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형성되고 그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출발점이 외래의 충격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민족주의는 매우 타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타생적인 성격은 저항과 반항적 차원으로 정체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족주의는 우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발전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여겨진다.

한국의 민족발전과 통일은 결코 서구자본주의의 발전과 통일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국민족주의가 민족의 생존과 번영 및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모색될 때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민족주의는 이중적인 면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발전이념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변 제 현

는 민주주의적 질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호 밀접히 관련성을 맺고 있는 관계라고 여겨진다. 그동안 한국민족주의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민족에 대한 지도원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내적 한계상황에 대한 규제력의 상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할 때 건전한 민주질서의 구축이 민족주의실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고찰된다.